

# 재정 아끼고 일 더하고... '모범운영 사찰'로 우뚝

## 도선사, 혜자스님 취임후 '日新又日新'

호국참회 기도 본찰인 도선사가 최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찰로 선정돼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조계종에서 모범 운영 사찰을 선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조계종은 왜 도선사를 모범 사찰로 선정했을까. 지난 3월 조계종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종정감사 결과, 도선사는 주지 혜자스님(사진)이 취임한 이후 그 전 해보다 재정 수입이 20억여원이 늘어났고, 실수익에 달하던 부채도 6억원이나 갚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호전됐기 때문이다.

혜자스님은 "서온하 종무실장을 비롯해 정동수 총무국장, 오도희 관리부장 등 종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찰운영에 힘을 보탤기에 가능했다"며 "종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신도들의 후원에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종무원들은 "주지 혜자스님의 투명한 재정운영 의지와 삼보정재를 소홀히 다루지 않는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주지스님에게 공을 돌렸다.

혜자스님은 주지 부임 이후 줄곧 투명하고 철저하게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한 바 있다. 2001년 11월 취임 인사에서도 "삼보정재 다루기를 비상(극약)과 같이 하라"는 청담 대종사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 사찰재정의 투명성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다. 혜자스님은 매일 수입과 지출을 손수 챙겨온 것이다. 한편의 수입도 헛되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지출을 줄였다. 대신 군법당 지원이나 사회복지 후원, 신도교육 등 불교와 종단, 사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과감히 투자했다. 사중일에 고생하는 종무원들의 급여도 40% 인상했다. 모범이 되는 종무원들에게는 포상금 지급과 유급휴가를 보내주는 등 파격적인 대우로 신망 받는 지도자상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담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성대히 치러냈다. 현대 한국불교의 큰 스승인 청담 대종사의 사상과 이념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도선사는 물론 나아가 조계종 역사에 남을 성과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청담 대종사 탄생 100주년 사업을 원만히 회향함으로써 도선사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반석을 닦았다. 또한 회주 혜성스님을 비롯해 부조실 현성스님, 청담기념관장 혜명스님, 청담문화재단 이사장 동광스님 등 청담문도회 스님들의 원용화합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혜자스님은 남은 임기 동안 도선사를 우리나라 최고의 기도·교육도량으로 키운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청담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이어 청담 대종사 사리탑 주변 성역화 불사를 3년여에 걸쳐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이 불사는 지장보살 3천기를 봉안해 지장보살 성지로 거듭나겠다는 혜자스님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

청담 대종사의 열반 직전 시봉 제자였던 혜자스님의 수행 면면에는 청담대종사의 생전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 있다. 혜자스님은 검소한 생활과 매일 108참회를 몸소 실천했던 대종사의 유훈을 받들어 조석



도선사를 전국 모범 사찰로 이끈 혜자스님. 그 비결은 투명한 사찰재정 운용에 있다고 말했다.

### '삼보정재' 비상쓰듯 재정 아끼고 투명운동 군법당·교육등 종단·사찰발전 투자 과감

#### "속세 그리워 눈물흘릴때 감싸주던 청담스님 아련"

예불과 108참회, 사시불공 등을 한번도 거르지 않는다. "이제 혜자가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는 대종사의 현몽이 아니더라도, 혜자스님은 항상 청담대종사와 함께 하고 있음을 믿고 도선사를 처음 찾았을 때의 초발심을 잃지 않으리라는 서원을 이뤄나가고자 매일매일 수행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나이에 출가해 힘들고 속세가 그리워 저 도선사 계곡 큰바위 뒤에서 흐르는 눈물을 웃소매로

훔치며 삼각산 꼭대기를 바라보던 기억, 그럴 때마다 맡음이 다가오시어 어린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은사스님, 배고픔에 허덕일 때면 잠자던 소년의 머리맡에 누룽지를 놓아주시던 사형님들, 여러 가지 번민에 휩쓸릴 때면 같이 고민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던 도반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도선사와 같이 헤달라는 무언의 바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가운데)과 오도희 관리부장(우측)·정동수 총무국장.

### 도선사 얼마나 달라지고 있나?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매달 말 도선사 주지 혜자스님과 소인 스님, 50여 종무원이 대중방에 모여 외는 경구다. 한달 동안 일한 보시금을 받는 이 자리에서는 "삼보정재를 아끼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는 혜자스님의 가르침이 설해진다. 때로는 피곤하고 짜증스럽겠지만 신도들은 정성을 들이려고 온 도량이므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라는 가르침이다.

#### 종무원에 친절 베풀기 생활화 교육

#### 실달학원 중심 불교배우기문화 정착

#### 청담기념관 개관·사리탑주변 성역화

하다. 그동안 도선사에서는 한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혜자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빠짐없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선사는 어느덧 토론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사실 혜자스님 주지 취임 이후 도선사는 많이 변했다. 혜자스님은 주지 취임 1년 6개월만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묘를 보이며, 도선사를 모범 사찰로 일궈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지도력과 소신있는 종무행정을 실천한 결과다. 혜자스님은 취임사에서 밝힌듯이 청담 대종사의 사상 정립과 사찰 재정의 투명성 제고, 신도교육 체계화, 화합대중의 실현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이후 첫 사업으로 진행된 청담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는 청담대종사를 한국불교의 스승으로 우뚝 세웠고, 청담대종사의 유품과 휘호를 모아 청담기념관을 개관했다. 3천 지장보살을 봉안하는 사리탑 주변 성역화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

스님들과 종무원, 신도들이 서로 믿음을 갖고 불사와 기도에 임하고 있고, 청담대종사의 유훈과 사형·사제의 충고, 종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화합대중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깔끔한 불사 뒷마무리로 도량도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이 때문에 혜자스님은 종무원들과 신도들로부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수행자다운 수행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또 한가지 달라진 문화가 있다. 다른 어떤 신도들이 불교를 배우는 문화가 형성된 것. 혜자스님이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립한 도선불교실달학원이 그 중심이 되고 있다.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실달학원은 신도들의 불교관을 길러주는 것은 물론, 기도도량으로 굳어진 도선사의 이미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도와 교육이 함께 이뤄지는 도량으로 가꾸겠다는 혜자스님의 의지가 빛어낸 결과다.

소외된 이웃과 낙후된 포교현장, 종립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혜자스님의 신념 때문이다. 복지시설인 혜명양로원, 혜명보육원, 청담복지관, 자혜방생원은 물론 청담장학문화재단과 청담중·정보통신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을 상향 조정했다.



청담 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문물연 청담기념관.



올 1월에 열린 '도선불교실달학원' 졸업식.

### <삼천 지장보살 봉안접수>

도선사에서는 지난해부터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사리탑 주변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삼천지장보살 조성 및 청기와 불사를 병행하고자 발원하였습니다. 바라옵건데 뜻있는 불자제현께서는 지장보살 불사와 기와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이 인연공덕으로 세세생생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여 구경에는 다함이 없는 무상보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3



### 계미년 백중맛이 49일 지장기도 및 7·7재 봉행

- 입재 : 음력 5월 24일
- 회향 : 음력 7월 15일

(매주 화요일 11시 호국참회원에서 7·7재 봉행합니다.)